



2021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청년여성 '에브리타임' 속 차별 및 혐오를 말하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성인지 관점에서 대전시 및 자치구의 정책과 사업, 또는 젠더 이슈 관련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해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6명의 청년여성들과 함께 대전시 소재 2개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에브리타임(Everytime)'에서 나타나는 20대의 차별 및 혐오 표현 실태를 살펴봤다. 게시물 및 댓글에 주요하게 드러난 차별 및 혐오적 요소를 고찰하고, 나아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차별 및 혐오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10월 14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열고 전반적인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자세한 모니터링 활동 내용은 '2021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차별 및 혐오 표현 실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및보

단순히 혐오 발화에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 있어

몬탁

에브리타임 이외의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름

약자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언어들만 때때로 평범한 하루를 망쳐버리기도 했지만, 같은 뜻을 가진 활동가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플탁

비단 한 사이트, 어느 대학만의 특이한 정서가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 드러난 보편적인 차별 및 혐오 표현을 직시할 수 있었던 시간이 돼

노을

모니터링 활동은 혐오 표현의 기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발화가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혐오 발화를 줄일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간의 연속이었어

새벽

낯선 혐오와 거센 백래시로 인해 건전한 담론의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고 고민이 많아졌으나, 여성주의적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



Daejeon Gender Equality&Family Policy Center 이번 모니터링 어땠어?

#모니터링 #청년여성 #참여소감 #😊

한눈에 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추진 과정'

청년여성 모니터단과 사업을 담당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그리고 멘토가 주축이 되어 사전 모니터링부터 결과 공유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자.



차별 및 혐오 표현의 공통적인 경향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이 있다고 판단된 게시물 278건에서는 348개, 580건의 댓글 '차별·혐오' 표현이 있는 게시물에 첨부된 댓글로 한정에서는 674개의 혐오 요소가 발견됐다. 가장 많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은 '여성주의 가치관 및 페미니스트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났다. 차별 및 혐오 표현의 경향을 다음의 10가지로 분류했다.

Q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적 태도와 비하

“페미니스트는 법으로 활동금지 내려한다고 생각해”
 “페미 쓰레기”
 “꼴페미들 역겹”

Q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비난
 - '대림동 여성 경찰관' 이슈에서 촉발된 '여경 무용론' 주장

“그냥 여경 싸그리 없애고 그 자리에 노숙자 아재들 일자리 주면 안되냐?”
 “남경 3명이 할 거 여경은 9명 필요한데 세금이 그냥 줄줄 나간다”

Q 밈(meme)으로 나타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조롱
 - 페미니스트를 억지를 부리는 존재로 희화화하기 위해 “-해줘” 라는 표현 사용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난 위험해서 밤에 못 있어 근데 돈은 똑같이 받을래 왜? 해줘”
 “안전하게 '해줘'”

Q 병역의무와 출산을 둘러싼 불만과 여성을 향한 비하

“남자들만 강제징병 당해서 내 청춘 날리는데 보상은 없고 당연한 걸 요구하는게 뭐가 문제라는 거임?”
 “이제 출산도 법적 의무로”

Q 여성혐오(Misogyny)에 대한 몰이해와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여성혐오 표현

“아주 이쁜 여자친구랑 연애 잘만 하고 있는데 여혐은 무슨”
 “언냐”, “오편케”, “-그”, “아몰랑”, “눈물이 나ㅠㅠ” 등 여성들의 말투 희화화 및 조롱

Q 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에 갇힌 여성 폄하

“여성할당제 같은 쓰레기 같은 게 존재하면 안됨”
 “능력이 없어서 못 올라간 걸 왜 성별이 여자라서 못 올라갔다고 생각할까?”

Q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과 이들을 향해 표출되는 혐오

“퀴어 역겹긴 하지만”
 “병림픽(병신+올림픽)”

Q 여성 신체의 성적 대상화

“리얼돌이 누구한테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성범죄 감소 차원에서라도 여성계에서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야동 보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

Q 특정인을 향한 비방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²⁾

“○○ 진짜 꼴보기 싫음”
 “아니 ○○○ 왜 자꾸 나오냐고”

2) '차별·혐오' 표현이 있는 게시물에 첨부된 댓글로 한정
 3)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단적·지속적·반복적으로 모욕·따돌림·협박하는 행위

